

원희룡 장관, “현장에 즉시 복귀해 달라”

- 업무개시명령 조사 현장 방문, 화물차주에 현장 복귀 설득 전화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,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.
- 원 장관은 국토부, 지자체,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운송사의 배차현황, 화물차주의 운송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직접 참여하였으며,
 - 운송업체 담당자를 만나 “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주의 운송요청에 적극 응하고, 화물차주에게는 적극적 배차지시와 운행 독려를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- 또한, 원 장관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중인 화물차주 리스트를 확인하고,
 -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“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,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”이라며 “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,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달라”고 설득했다고 밝혔다.

2022.11.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